

TV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다이나믹듀오 '개코'

리쌍 '개리'

“힙합 인기는 대중이 선택해준 덕분이죠”

‘힙합계 쌍두마차’ 리쌍 개리·다이나믹듀오 개코, 합동 인터뷰

리쌍(개리, 길)과 다이나믹듀오(개코, 최자)는 자타 공인 ‘힙합계 쌍두마차’다. 두 팀은 경쟁도 하지만 격려도 하는 끈끈한 사이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02년 리쌍의 첫 앨범에 씨비매스가 참여하며 개리와 개코는 처음 인연을 맺었다.

누에가 땀 났던 ‘개리’, 코가 개처럼 생겼다고 ‘개코’란 별명으로 불렀다는 둘은 예명뿐 아니라 선글라스를 낀 외모 등 여러모로 닮은꼴이었다.

◇요즘 힙합계는...“정체성 강한 래퍼 많아”=힙합이 몇 년 새 대중적인 장르로 떠올랐다.

▲잠깐 주춤하다가 확실히 올라왔다. 래퍼들의 인기가 많아지며 여성 팬들도 생겨났다.

▲한때는 힙합계에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지 못해 주춤했는데 요즘은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스타들이 많아졌다.

▲국내 힙합 태동기의 래퍼들은 크루 안에서 음악적인 품앗이를 했지만 지금은 레이블 차원의 크루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힙합 태동기의 래퍼들은 크루 안에서 음악적인 품앗이를 했지만 지금은 레이블 차원의 크루가 형성되고 있다.

▲정답이 없는 것 같다. 진부한 가사를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하는 래퍼도 있고 패션과 캐릭터까지 멋진 래퍼도 있다.

것 같다. 랩에 메시지까지 담는다면 ‘베스트’다. 다소 아쉬운 점은 과거엔 힙합 팬들이 래퍼의 생각과 사상에 공감했다면 요즘은 캐릭터에 더 영향을 받고 좋아하는 것 같다.

▲형 말처럼 래퍼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 힙합 팬들이 더 테일한 감정을 살린 개리 형의 랩을 기대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실력 있는 MC(Microphone Controller : 랩을 하는 사람)라면 라인(랩의 운율)과 플로우(목소리 톤, 박자를 밀고 당기는 스타일 등 랩의 흐름) 등의 스킬이 중요하지 않나.

▲비트를 듣고 ‘랩을 어떻게 구성하고 표현할 것인가’란 점에서 총체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랩 가사를 쓰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중견 래퍼의 고민은...“프로듀서로서 고심 커”=음악 방향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말로 드러났다.

▲우리 래퍼면서 프로듀서이니 랩 스킬보다 앨범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한다. 가사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도 고민이다.

▲개리 형 얘기에 공감한다. 프로듀서이다 보니 언어유희, 랩 스킬보다 앨범의 밀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고민이다.

▲성공한 중견 래퍼이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어제 비트를 하나 받아서 7~8시간 동안 듣다가 밤 11시에 귀가 멍멍해졌다.

▲‘사정 포 슈가맨’이란 다큐 영화를 봤는데 공전의 히트를 한 뮤지션 슈가맨은 돈, 명예를 다 버리고 사려져 다른 삶을 택했다.

▲정답이 없는 것 같다. 진부한 가사를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하는 래퍼도 있고 패션과 캐릭터까지 멋진 래퍼도 있다.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such as 00:00 올림픽, 01:40 <국어1>, etc.

EBS플러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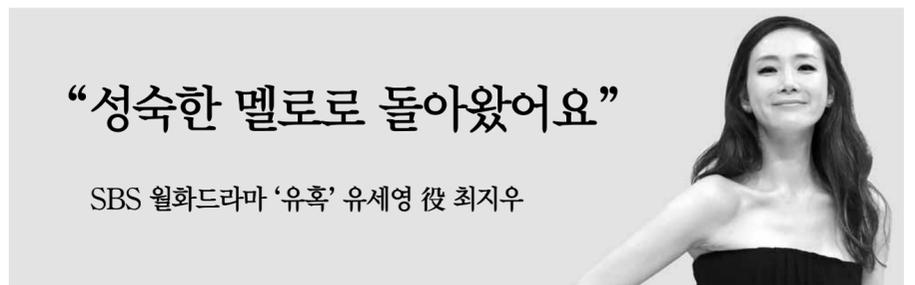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such as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showing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with birth dates and运势 details.

7월 16일(음 6월 20일 戊子)

Table showing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birth dates and运势 details.



“성숙한 멜로로 돌아왔어요”

SBS 월화드라마 ‘유혹’ 유세영 역 최지우

회사 경영이 삶의 전부다. 사랑이 끼여들 틈도 없다. 일상에서도 손의 계산에 빠고 차갑다.

유세영은 의사로부터 자궁적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일이 먼저이기엔 수술을 미룬다.

최근 목동 SBS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만난 최지우는 대뜸 “멜로에 목말라 있었다”고 밝혔다.

최지우는 전작 SBS ‘수상한 가정부’(2013)에서 무표정한 얼굴 아래 비밀을 숨긴 수상한 가정부 박복녀 역할을 맡았다.

최지우는 “유세영은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고 일과 사랑 중에서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냉철한 여인이다.

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 수 없는 사랑이 다가오면서 사랑을 알아가게 된다”고 소개했다.

드라마는 유세영이 사업 실패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차석훈(권상우 분)에게 총동적으로 10억 원을 대가로 뜻밖의 제안을 하는 데서 시작된다.

최지우는 “처음부터 권상우 씨와 호흡이 잘 맞고 편했다”면서 “권상우 씨를 막상 봤을 때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지우는 이어 “천국의 계단”이 뜻밖의 첫사랑의 예쁜 멜로였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성숙한 어른들의 멜로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우는 올해 초 주요 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로 이직할 이후 첫 작품으로 ‘유혹’을 골랐다.

“새 작품을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작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활영해요. 이번에도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어요.”

연출뉴스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 환영!” ☎010-9790-8237